

## 제33회 光日보훈대상 영광의 얼굴

## 전상군경 4급 김수성 씨



인 김수성씨와 결혼하고 전방군제에 입사해 17년 6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전남도지사·노동부장관 표창장을 받는 등 근면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

전상 후유증 등의 고통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면서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광주광역시 복구 기회장을 지내면서 회원 상호 간의 단합과 친목을 위해 노력했다.

## 1급 공상군경의 처 박윤자 씨



김수성씨는 지난 1966년 8월 19세의 나이로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김수성(59)씨는 68년 베트남 호이안에서 매우 중 적군의 기습으로 왼쪽 허벅지 골절 및 총상을 입은 전상군경 4급 유공자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현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제대 후 전상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73년 부

결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박씨는 그러나 고통을 호소하는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간병에 최선을 다했고, 3남1녀의 자녀와 시어머니 뒷바지까지 흐트러짐 없이 해왔다.

특히 남편을 재활운동까지 시켜 탁구대표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시키는 등 남편의 재기를 훌륭하게 도왔다.

## 전상군경 유족의 처 정정자 씨



정정자(64)씨는 6·25전쟁 중 강원도 양구군 지구에서 적과 교전 때 왼쪽 어깨에 파편 상을 입고 제대한 전상군경 고 김상규(1982년 작고)씨의 아내다.

황해도 황주군 삼전면 출신으로 친정 가족들과 어여져 흘로 월남한 정씨는 기독교 병원에서 입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김씨를 만나 결혼했다. 이후 전상자인 남편을 극진

히 보살폈지만, 후유증이 심했던 남편은 1982년 사망했다. 남편의 오랜 투병생활로 생활고까지 겪쳤고 장애 1급을 앓고 있는 막내 아들까지 있었지만 행상·식당일 등 온갖 일을 해가며 3남1녀의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정씨는 90년부터 매주 2~3회 복지시설에 들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순직군경 유족의 부친 이한준 씨



이한준(74)씨는 1983년 경기도 동두천에서 훈련 중 사고로 숨진 이상배씨의 부친이다. 이씨는 외아들 순직에 따른 충격으로 몸져 누운 부인 정창희(장애 2급)씨를 20여년 이상 간호하면서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광주지부'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충탑 참배와 정화활동 등에 적극 앞장섰다.

이씨는 6·25전쟁 중인 1953년에는 화순경

찰서 순경으로 근무하며, '빨치산 대치 작전'을 수행해 '대통령 수장' (1954년)과 'UN총사령관 종군 기장'(1958년)

을 수여받았다. 이후 '광

주시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이사로 일하면서, 지리산 뱀사골·곡성 태안사·화순 이십곡리 참전 순직경찰관 추모 행사를 적극 추진했다.

## 무공수훈 유족의 처 김종례 씨



장서왔다. 1983년에는 광산구(당시 광산군) 재향군인회관을 자비로 짓기도 했다. 김씨는 이어 1988년 '재향군인회 광산구지회' 여성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2년 남편이 폐암으로 숨진 뒤에는 '광산구 무공수훈자회 미망인 모임'을 결성, 광산구 현충탑 정기 참배와 연정화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김씨는 훗날 경제적으로 자립하자 광산경

찰서에 사무집자를 지원하고, 평동초등학교

에도 재정적 후원을 하는 등 지역발전에 앞

## "님의 숭고한 희생 있어 이나라 미래 밝습니다"

## 제33회 光日보훈대상 시상식

광주일보사가 주최하고 광주지방보훈청이 후원하는 '제33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이 6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렸다.

한국 영령들의 얼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 광주일보사가 제정한 이날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에는 흥영기 전남지방경찰청장, 송계축 광주지방보훈청장, 반명환 광주시의회 의장 등 각급 단체 기관장과 보훈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광주일보 김진영 기사는 이날 시상식에서 1968년 베트남 전쟁 중 호이안 전투에서 왼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어 명예 제대한 김수성(59)씨 등 5명에게 각각 상패와 부상을 수

여했다.

김 이사는 기념식사에서 "올해로 33돌을 맞은 광일보훈대상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꽃꽂하게 삶을 일궈가는 모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에게 자활의 용기를 북돋아드리기 위해 마련한 상"이라며 "목숨 바친 희생에 비견하면 보잘 것 없지만, 다시금 웃음을 여미며 마음속 깊이 우리나라는 진실의 경의를 보태 마음의 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계축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오늘 행사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과 사회공동체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신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더욱 모범적인 삶을 개척해 나감으로써 우리사회에 등불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제33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이 6일 오전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시민회관에서 보훈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

## 호남고속도로 급커브 1.1km

## 완만한 선형 개량 오늘 개통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인근 선형개량 공사 일부 구간이 7일 오후 6시에 개통된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6일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04.9~107.1km 지점인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백양사 휴게소에서 순천방향 1.1km 급커브 구간을 완만한 선형으로 개량해 조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총 공사구간 2.2km 중 50%에 해당하는 1.1km로, 당초 오는 2007년 8월 개통될 예정이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으며, 공사비는 163억이 들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오 필승 코리아' 작곡자 등 상대

## '붉은 악마', 저작권 확인 소송

한국 축구대표팀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는 6일 가수 윤도현씨가 부른 월드컵 응원가 '오 필승 코리아'의 작곡자 이모씨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저작권 확인 및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붉은 악마'는 "이 노래는 창립 때부터 사용됐고 소속 운영위원 2명이 저작권자인데 이씨가 동의없이 노래를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고 포털 사이트 등에 상업적으로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러나 "응원 구호를 가장곡 형태로 만들어낸 만큼 이 노래에서 가사를 제외한 부분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이승배기자 lsb54@

## 짜증내니 더 덤네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뒤 점차 가장자리에 틀면서 밤에 흐려지겠다.

광	맑은 뒤 흐려짐	18~29°C
복	맑은 뒤 흐려짐	18~26°C
포	맑은 뒤 흐려짐	17~24°C
여	맑은 뒤 흐려짐	17~27°C
수	맑은 뒤 흐려짐	17~30°C
원	맑은 뒤 흐려짐	16~28°C
도	맑은 뒤 흐려짐	16~28°C
구	맑은 뒤 흐려짐	16~28°C
례	맑은 뒤 흐려짐	16~28°C
남	맑은 뒤 흐려짐	16~30°C
홍	맑은 뒤 흐려짐	16~28°C
천	맑은 뒤 흐려짐	16~30°C
광	맑은 뒤 흐려짐	16~28°C
주	맑은 뒤 흐려짐	16~28°C
전	맑은 뒤 흐려짐	16~29°C
남	맑은 뒤 흐려짐	16~30°C
정	맑은 뒤 흐려짐	16~28°C
고	맑은 뒤 흐려짐	16~28°C
순	맑은 뒤 흐려짐	16~28°C
영	맑은 뒤 흐려짐	16~28°C
진	맑은 뒤 흐려짐	16~28°C
전	맑은 뒤 흐려짐	16~28°C
남	맑은 뒤 흐려짐	16~29°C
정	맑은 뒤 흐려짐	16~29°C

서해남부  
안나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만나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안나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만나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10:32 썰물 14:11

여수 밀물 03:38 썰물 11:50

▲해뜸 05:18 ▲해침 19:45 ▲달듬 15:22 ▲달침 02:08

기상안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짜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날씨	비	비	비	비	비	비
최저/최고	18/25	19/26	17/28	18/28	18/29	19/28

## 6월 7일

(음 5월 12일)  
◇전국날씨



## 월드컵 2題

## 재소자들에 한국경기 시청 첫 허용

법무부는 6일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이 독일 월드컵 한국팀의 조별 예선전 3경기를 사상 처음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2 한·일 월드컵 때는 한국팀의 경기 시간이 낮 또는 이를 저녁 시간 이어서 취침 시간만 일부 조정해 TV 시청을 허용했었다.

법무부는 각 경기관별로 축구 시청을 원치 않는 수용자들을 파악해 취침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등 '소수자'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전국 교도소·구치소에는 약 1만5천개 수용실 가운데 빈 방이나 조사·징벌실을 제외하고 약 1만2천대의 TV세트가 보급돼 있으며, 수용자들은 평소 하루 평균 5~7시간 TV를 시청할 수 있으나 녹화 방송인 경우가 많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법원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법원이 보석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대가 후원하는 독일 월드컵을 구치소 내 14인치 TV로 봐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서울=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서울~광주 등 '월드컵 전용버스' 운행

기존 차량과는 별도로 운행된다.

이번 이벤트는 서울~광주 등 6개 노선에서 월드컵 전기간(6월10일~7월10일) 동안 진행되며, 이용 12시간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금호고속은 또 한국전 중계방송 시간대에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 운임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별 리그 경기시간대 10%, 16강 30%, 8강 50%, 4강 100%를 할인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금호고